

예배 및 모임안내

2019-31호 2019년 08월 04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3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성경 읽기 모임	매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구역 모임	월 1회(구역 별)	구역 별 결정

주일 예배 봉사위원

	08. 11	08. 18	08. 25
대 표 기 도	유미경 집사	김영희 권사	유미영 집사
성 경 봉 독	유미경 집사	김영희 권사	유미영 집사
헌 금 위 원	김영희 권사	유미영 집사	김효종 집사
안 내 위 원	유미경 집사	유미경 집사	유미경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요8~21장)
2. 목회자 모임 - 5일(월) 하노버 한민교회(고영기 목사 시무)에서 12시에 모입니다.
3. 천막 전도집회 - 8월 30일(금)~9월15일(주일)까지 열립니다. 자체 예배드립니다.
4. 나눔의 시간 - 여전도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우동정

생일	이수현 성도(4일) 문정현 집사(6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육체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2. 천막집회(8월 30일(금)~9월15일(주일)를 위하여
3. 김선태,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헝가리) 사역을 위하여
4. 전도, 선교, 구제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기 원 Altargebet 김영희 시무권사
- *찬 송 Gemeindelied 8장 다같이
- *성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58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405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정용현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마 16 : 5 - 12 (신p27) ... 이에스더 자매
(Matthäus 16:5-12)
- 특별찬양 Sonderlied 박규미 자매
- 설 교 Predigt **당신의 영은 건강한가요?**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406장 다같이
- 성찬예식 Abendmahl 마26:26~30, 228장(2,4절) 담임목사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다같이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친교실

다윗 장군의 덕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 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무엘상 30장 6절)

다윗 장군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뛰어나서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고, 끝내는 이방 땅인 블레셋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도 다윗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빠지게 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집을 잠시 비운 사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집 들을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사로 잡아 갔습니다. 다윗과 함께 돌아온 병사들은 자기들 눈 앞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몇몇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 담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 세상의 길이 다 막혀도 절망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살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맞았어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무리 바빠도 위급한 상황을 맞이한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시각을 다투는 절대 절명의 시간, 그러나 다윗은 부상당한 외국인을 극진히 보살피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의 덕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